

2015
한·일 대학생
PEACE
TOUR

PEACE TOUR 2015

• 2

인사말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금년도에도 우리 한일대학생들이 변함없는 우정을 가지고, 지뢰피해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민통선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감사드리며,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열띤 토론을 이어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엮어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일대학생 피스투어가 시작 된지 벌써 9년째가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선배들이 피스투어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특히 민간인 통제선내의 통일촌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그 자녀들을 만났으니, 분단의 아픔을 잘 이해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며, 나라의 분단, 민족의 분단, 가족의 분단 등 분단으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스투어를 위하여 도움 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Peace Sharing Association



니꼬리(Nikkori)



Toward a Mine-Free World

한·일 대학생 피스투어

(사)평화나눔회(PSA: Peace Sharing Association)는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와 공동으로 1997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한국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로 1997년 창립되었고, 2009년 7월 '(사)평화나눔회'로 단체명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대인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을 조사 파악 및 후원하고,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오타와 국제조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국제 평화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듯이 평화의 기쁨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민, 청년, 학생들이 지구촌 난민의 상태를 정확히 하고 소외된 이웃과 평화적 삶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긴급구호, 평화교육, 국제교류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경험과 공헌 38선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활동취지 일본과 한국을 연결,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일본과 한국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공헌하려 합니다. 또한 한일 우호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일본 및 한국의 장래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NIKKORI는 일본으로 일본 한국 미래프로젝트의 줄임말이며 방긋, 생긋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이기도 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허물없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방긋 웃자는 취지를 나타내는 단체명입니다.

활동내용 한글강좌, 히로시마 활동, 38선 평화활동(피스투어), 조선대학교(재일교포학교) 교류 활동 등

38선 평화활동(피스투어)의 목적 한국에 현존하는 대인지뢰 문제를 기반으로, 한일 학생들이 한국 및 북한의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넓혀 가려 합니다. 한일 학생들이 이 경험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정검다리가 되어,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소양을 익히려 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고통과 60여년 보존된 자연이 공존하는 DMZ 부근 농촌마을을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일정에는 국·내외 지뢰 문제와 지뢰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농활과 초등학생 캠프를 기획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평화와 생명, 도시와 농촌의 소통, 세대간의 소통,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일 대학생 PEACE TOUR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와세다대학교 봉사센터(WAVOC) 소속



- ▲ <통일촌 입구>
- ◀ <통일촌 가는 길>
- ▼ <통일촌 풍경>

피스투어 장소소개

통 일 촌

통일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민통선 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 관광지를 비롯하여 옛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통일의 꿈을 안고 경의선 연결과 도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통일촌은 1970년대 초 황무지로 방치된 채 놀고 있던 땅을 개간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입주민들은 17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들로 향토 예비군을 편성하여 국방의 일면을 담당하게 하는 등 이스라엘의 전략촌인 '키부츠'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정착 마을입니다. 이곳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일반 민간인들의 출입이 제한을 받는 곳으로 휴전 이후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잘 보전되어, 유엔에서 자연환경보전권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봉사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이완배 이장〉 ▶



PEACE
TOUR
2015
• 4

피스투어 지난 8년

(1회~8회)

제1회 2007년

일시 2007년 8월 3일~8월 16일

장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견학장소 양구전쟁기념관, 21사단 군부대,
임진각-제3땅굴(DMZ영상관),
도라산 전망대, 통일촌, 임진각

회장 이세연

참가자 한국 – 20명, 일본 – 20명



제3회 2009년

일시 2009년 8월 3일~8월 15일

장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견학장소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노동당사, 서대문형무소, 평화박물관

회장 김성일

참가자 한국 – 15명, 일본 – 12명



제2회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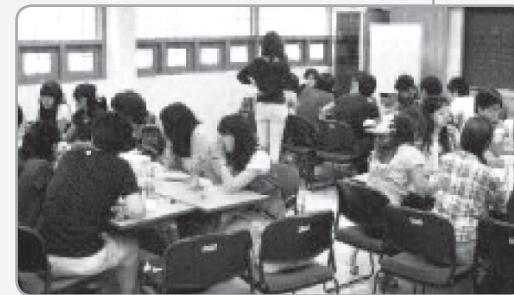
일시 2008년 8월 4일~8월 17일

장소 강원도 화천군 풍산리

견학장소 전쟁기념관, 군부대방문,
개성투어, 서대문형무소

회장 최재연

참가자 한국 – 15명, 일본 – 12명



제4회 2010년

일시 2010년 8월 10일~8월 19일

장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대마리

견학장소 통일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두타연

회장 이세연

참가자 한국 – 16명, 일본 – 13명

제5회 2011년

일시 2011년 8월 10일~8월 19일
장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견학장소 양구 전쟁기념관, 을지전망대,
편치볼, 제4땅굴, 두타연
회장 이혜민
참가자 한국 – 12명, 일본 – 12명



제7회 2013년

일시 2013년 8월 12일~8월 20일
장소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견학장소 열쇠전망대, 연천 5사단,
제3땅굴
회장 최진호
참가자 한국 – 15명, 일본 – 13명



제6회 2012년

일시 2012년 8월 9일~8월 17일
장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견학장소 폭풍전망대, 제2땅굴, 백마고지
회장 서진영
참가자 한국 – 13명, 일본 – 18명



제8회 2014년

일시 2014년 8월 5일 ~ 8월 14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해마루촌
견학장소 JSA, 도라전망대, 제3땅굴
리더 김형은
참가자 한국 – 11명, 일본 – 12명

참가자 소개



김백상 (리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리더십 ★★★★★

레크리에이션 ★★★★★

넘치는 에너지와 선물, 앰프로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준 리더



전건호

(부리더 / 서기 / 사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멋짐 ★★★★★★★★★★

짱짱 멋짐. 그냥 멋짐. 자세한 설명은 생략. (참고로 이 보고서의 편집자)



김해인

(부리더 / 농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성실 ★★★★★

항상 할 일을 찾아 묵묵히, 열심히 해준 배려심 깊은 우리의 부리더. 피스투어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든 숨은 공로자!



이정현

(총무)

연세대학교 사학과 4학년

바보 ★★★★★

책임감 ★★★★★

우리들의 엄마! 직책은 가장 똑똑한 총무인데 현실은...? 일견 냉철하고 이지적인 인상이지만 가끔 보이는 바보스러운 귀여움이 반전 매력



안재혁

(총무 / 스마일)

RUTGERS University 공공복지학과 3학년

웃음 ★★★★★

“피스투어, 소 타이어드. 벗, 조아씨. 아~ 웃겨. 유노, 런 모어, 군.”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준 피스투어의 아메리칸 애너자이저!



조현豁

(총무 / 환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영어 ☆

일본어 ★

회의 때는 보이지 않던 투명인간에서 통일촌에서는 일약 여성들의 귀요미로! 피스투어에서 외국말만 하느라 한국말을 잃었다는 후문이.....



김나연 (썸머스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잡초 햄오 ★★★★★

공주 ★★★★★

“잡초를 뽑을 때는 기계를 사용합시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상케 하는 명언을 남긴 우리의 사고뭉치 나연 공주!



김병욱 (식사)

서울신학대 일본어과 1학년

장난기 ★★★★★

외모 ★★★★★

항상 장난을 치고 다니는 피스투어 공인 나쁜 남자! 하지만 알고 보면 웃사람에겐 깍듯하고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 매력남



김웅비 (토론)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마성 ★★★★★

팬 관리 ★★★★★

특유의 분위기로 피스투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팬을 거느리며 인기상을 따놓은 마성의 남자. 표정과 분위기 만으로 모두를 웃길 수 있다고.



류제영 (썸머스쿨)

연세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3학년

고생 ★★★★★

그저 애들과 놀려는 마음으로 썸머스쿨을 맡았다가 갖은 고생을 다 했다고. 덕택에 썸머스쿨은 성공적, 로맨틱!



성미래 (통역)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1학년

능력 ★★★★★

바보 ★★★★★☆

통역 잘해, 영어 잘해, 일본어 잘해, 일도 잘해, 잘 웃어~ 모든 걸 갖춘 피스투어의 히로인! 통일촌의 로컬이었다는~~



양소혜 (통역)

연세대학교 교환학생 3학년

운동 ★★★★★

인기 ★★★★★

한없이 밝게 웃는 예쁜 대학생 누나. 그 미소로 통일촌 초등학생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풍문이.....

한국



이예나 (식사)

서울신학대 일본어과 4학년

먹성 ★★★★★

태초에 야식이 있는 곳에 예나가 있으니라. 언제 어느 때든 맛있게 밥을 먹는, 식사 준비를 위해 태어난 멤버!



이예성 (식사)

서울신학대 일본어과 1학년

이야기 ★★★★★

바보 ★★★★

피스투어의 마스터 셰프이자 천성적인 이야기꾼. 그가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대는 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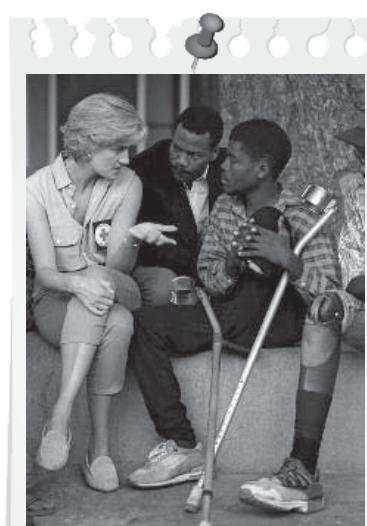


최아람 (토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4차원 ★★★★★

마치 짱구를 보는 듯한 그녀의 엉뚱한 매력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진중할 텐 한없이 진중해지는 면도 있다는데.....?



다이애나비는 대인지뢰 주방 국제캠페인에 적극 관여해 앙골라, 보스니아를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광석 (리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2학년

인자함 ★★★★

똑똑 ★★★★★

한국팀 리더와는 또 다른 카리스마로 일본팀을 이끌었던 리더! 특유의 인자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진 아무도 모른다.....?



박경하 (통역)

오쓰마 여자대학 커뮤니케이션 문화학과 2학년

밝음 ★★★★★

끼 ★★★★★

아침이면 눈썹을 그릴 새도 없이 농촌 일을 하려 바로 나가던 그녀! 사진을 찍을라치면 “눈썹이 없어요~”라고 말하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



이시훈 (토론)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부 3학년

친화력 ★★★★★

자기소개에 의하면, 이 분은 매우 소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즈미사와 아야카 (식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1학년

활기 ★★★★★

이름 ★★★★★

“아야카~” 이번 피스투어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불린 멤버. 이름이 불릴 때마다 경쾌하게 “아야카데스~”라고 답하던 그녀는 이미 피스투어의 활기!



쿠마사코 마이카 (댄스)

도쿄여자대학 국제관계학부 2학년

사극 ★★★★★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정한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히 해내는 애이스! 또한, 한국인보다 한국 사극을 더 많이 보는 신기한 사극 매니아.



히로타 안주 (챔머스쿨)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

설빙 ★★★★★

특유의 진지한 표정으로 언제나 열심히 일하던 그녀! 하지만 그런 그녀의 표정도 설빙 앞에서는 한없이 행복해진다고.

2015

8

August

전체일정
및 식단

MON	TUE	WED
3 20:00 일본팀 멤버 도착	4 10:00 개회식(조재국 이사장님) 및 오리엔테이션(김난경 사무국장) 12:00 점심식사 13:00 강의(고미네 교수님, 조동준 교수님) 16:30 지뢰피해자(이경옥님, 김종수님)와의 만남 18:00 저녁식사	5 08:00 출발 09:45 DMZ/JSA 견학 및 점심 식사 16:20 장보기 18:00 통일촌 이동 21:00 저녁식사 22:00 일일평가

LN 학식
 DN 중식

LN JSA 스테이크 플코스
 DN 오야꼬동, 니쿠자가

SUN	MON	TUE
9 12:00 점심식사 13:00 마을잔치 준비 및 염색, 네일봉사 17:30 마을잔치 22:00 일일평가	10 08:00 농촌 봉사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썸머스쿨 15:00 휴식 18:30 저녁식사 20:00 토론 22:30 일일평가	11 08:00 농촌 봉사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썸머스쿨 15:00 휴식 16:00 토론 19:00 저녁식사 20:00 토론 22:30 일일평가

LN 카레
 DN 마을잔치 수육, 떡, 과일

LN 삼계탕
 DN 비빔밥

LN 장단콩 식당
 DN 부대찌개

THU

6

- 08:00 농촌 봉사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썸머스쿨
15:00 휴식 및 저녁 준비
19:00 저녁식사
20:00 토론
22:00 일일평가

FRI

7

- 08:00 농촌 봉사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썸머스쿨
15:00 휴식 및 장기자랑 준비
18:30 저녁식사
19:30 지뢰 교육 영상 감상
20:30 토론
22:30 일일평가

SAT

8

- 08:00 농촌봉사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장기자랑 준비
15:00 미니체육대회
19:00 저녁식사
22:00 일일평가



LN 제육덮밥
DN 치라시즈시



LN 야끼우동
DN 짜장밥



LN 콩국수
DN 바비큐

WED

12

- 09:00 통일촌 출발
09:30 임진각 견학
11:00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견학
12:30 점심식사
13:40 서대문 역사 박물관 견학
16:00 강의(조재국 교수님)
19:00 저녁식사

THU

13

- 09:00 지뢰피해자(고준진님)와의 만남
10:00 강의(김기정 교수님)
12:00 각종 상 수상식
12:30 해단식
13:00 점심식사



LN 들깨 캠핑수
DN 비빔밥



LN 샌드위치



김 백 상
사전회의

소중한 인연과 경험으로 두 번째 참석

지난 해, 피스투어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경험들을 얻은 나는 다시 한 번 피스투어의 문을 두드렸고, 막중하게도 리더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8월 4일 전까지 우리는 사전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5월 31일, 염선하여 선정된 멤버들과 함께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한일 대학생 피스투어’가 시작되었다.

우선 멤버들마다 토론팀, 식사팀, 썸머스쿨팀, 농촌봉사활동 프로그램 준비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각각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아무래도 사전준비를 할 때는, 지난해와 비교를 하며 준비를 해 나가게 마련이다. 유일하게 지난 참가자이자 현 리더인 나는, 최대한 지난해의 색이 물들지 않기를 바랐다. 좋았던 것은 끌어오되, 올해 멤버들의 개성을 최대한 살린 2015년 피스투어를 만들고 싶었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이기도, 많은 멤버들이 열성적으로 사전준비에 참여해 주었다. 각각의 능력과 개성을 말할 것도 없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훌륭히 수행해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 더 나은 방향을 위하여 PSA의 김난경 사무국장님과 김태준 팀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한국 팀의 티셔츠를 마채연 멤버가 디자인하였고, 매우 높은 퀄리티의 티셔츠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매우 아쉽게도, 마채연 멤버는 사정이 생겨 피스투어 일정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여기서나마 마채연 멤버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전회의는 6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다.

첫 만남 이후 두 달이 어느새 홀쩍 지나고 뜨거웠던 여름을 함께 지내고 서로를 알아가며 추억을 쌓았다.



PEACE TOUR

사전 준비

5월 31일 ~ 8월 2일

김 해 인 – 사전답사

답사는 확인이 아닌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

답사 전 준비품목을 제외하고 크게 물품과 환경으로 나누어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작성하였다. 기간을 정해서 각 담당별로 필요한 항목을 취합했고, 개인적으로 확인했으면 싶은 것들을 의견 받아서 작성하였다.

철저한 신분 검사를 마치고 도착해서 이장님과 인사를 마친 후 우리가 머물 숙소를 둘러보았다. 큰 방 1개, 작은 방 2개로 총 21명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방 앞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점심 후에는 근처에 있는 공판장 및 구명가게 품목을 확인하였는데 고기 및 채소, 야채류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품목들은 거의 다 있었다.

다음으로 썸머스쿨을 진행할 학교로 갔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하였다.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아이를 만나 인사했는데 신기하게도 추후에 그 아이가 나의 썸머스쿨 담당 아이가 되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를 진행할 급식실, 강당, 운동장 등을 확인하였다. 학교 시설도 깨끗하고, 아이들도 참 밝고 예뻐 보여서 앞으로 진행될 썸머스쿨이 매우 기대되었다.

구명가게 확인 및 교회, 마을회관 장소를 확인하려 길목을 걸어 들어갔다. 도둑이 없는 동네라 그런지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정원을 다 예쁘게 꾸며놓았다. 시골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서 길목을 보며 시골이라는 생각보다는 외딴 섬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답사 당시에는 숙소도 불확정적이었고, 샤워실도 적었고, 주방 기구 및 에어컨도 없고 이불과 베개 수도 부족해서 솔직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가서 생활해보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에어컨도 새로 설치해주셔서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필요한 주방기구들도 챙겨가고 빌리기도 하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답사는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류 제 영 – 썸머스쿨

어려워 보이지 않아 선택했지만…

첫모임을 가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정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썸머스쿨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말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 힘이 많이 들었다. 계획안을 가지고 일주일에 2, 3번씩 사무실을 찾아가 국장님과 팀장님께 물어보고, 수정 받고, 다시 고치고를 한 것 같다. 여러 가지를 고치고 또 고치고 확인을 해서 일정을 확정 지었다.

피스투어 멤버들과 군네초교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이라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준비물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프로그램별로 구매해야 할 준비물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범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던 터라 영수증, 구매 물품을 다 사진을 찍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놀랐다. 과학 실험 물품을 사는 데는 온라인 주문이어서 영수증이 따로 오지 않아, 회사로 직접 전화하여 세금 계산서를 부탁했고 메일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받고 나서야 약 2개월에 걸친 사전 준비 및 물품 구매는 끝이 났다.

통일촌 숙소에 머물렀던 첫 날 회의 시간에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과학 실험을 해야 하는 전날에는 각 조 조장들을 붙잡고 과학실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각 조 조장들이 오히려 과학 실험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주어서 고마웠다.

이 예 성 – 식사 사전 준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가 다양~~

처음에는 식사 준비하는 팀이 모든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 메뉴를 정하고 요리는 몇 명이 누가 하며 설거지는 누가 하고 식재료는 어떤걸 살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라는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도 잡고 안도를 했지만 사전에 식단을 짜는 것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정말 막연하고 어려웠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 생각보다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품 메뉴가 의외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메뉴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요리 방법이나 재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써야 했고, 한국과 일본의 대표 메뉴이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레시피의 요리들로만 결정했다. 메뉴에 따른 재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했지만 막상 마트에서 사려고 보니 얼마큼

사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고민거리가 정말 많았다.

처음에 일본과 한국 멤버들이 섞어서 요리를 하려고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나 자기 나라 스타일의 음식을 많은 양을 하는 것 이므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끼리 식사 당번을 하게 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일인 것 같다.

많은 인원이 음식을 해 먹는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기회을 해본 유익한 경험이었다.

최 아 람 – 토론 사전 준비

토론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

토론 담당은 두 달 동안 사전 회의 및 준비를 하였고 그 중 토의되었던 것은 주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주제를 선정하고 또 각각 주제 안에 소주제를 정하므로 그 주제에 대한 토론 방향을 잡는 작업을 했다. 한국측과 일본측은 각각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를 선정한 뒤에, 토의를 걸쳐 7월에 최종적으로 주제를 결정했다.

두 번째는 토론 진행 방식이었다. 주제에 맞춰 진행 방식도 각각 다르게 설정을 했다. 사전 회의에서는 조별토론 방식이나, 동서남북 토론 방식, 비정상회담 토론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인원 부족으로 잘 시행되지는 못했다.

세 번째는 사전학습조 구성과 주제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토론 담당자만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담당자 외의 모든 멤버가 사전 학습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한 것이다. 조 구성은 친목을 쌓기 위해 나이와 학년의 비율을 맞췄고, 또한 사전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일본어 능통자를 각 조의 조장으로 설정했다.

준비 기간 중 본인은 타 토론 담당자와 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 회의에서는 주로 주제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서 사전준비 단계에서 다양한 시각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 본인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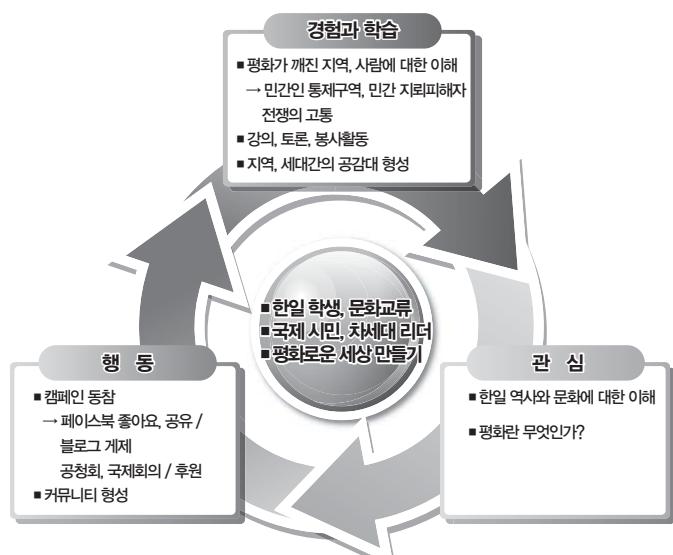
강의 감상문

8월 4일, 12일 ~ 13일

오리엔테이션 – PEACE TOUR의 목적과 의미

피스투어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피스투어에 신청했을 때의 초심과 프로그램의 취지를 잊고 지냈었는데 피스투어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듣고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좀 더 긴장감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현흠
고미네 교수님 강의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에 대해

오토 첫날 첫 강의는 바로 고미네 교수님의 강의였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수님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PEACE TOUR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낫코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이러한 강의가 큰 생각 없이 PEACE TOUR에 참여한 나에게 이 활동의 의의와 또 그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켜주면서 피스투어를 시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했다. 그 후론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일본 아베의 현법 개정, 자위권 등 동북아 평화에 관련된 행보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강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자면, 아베는 현재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인한 일본의 군사권에 대한 제약을 최대한 풀려고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아베는 전쟁 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법 9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아베는 자위대의 권한을 점차 확대하려는 시도 또한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위대를 동맹국의 평화의 목적 등등 해외에서 자위권의 무력을 행사하는 권리인데, 이는 일본 자위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순수 일본 국방의 목적에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아베 정권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일본의 무기산업 강화 등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의를 통해 아베의 행보가 과연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베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마치고 짧게 그룹을 형성해 토론할 시간을 주셨다. 아베의 행보가 동북아 평화에 선한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다. 나는 반대 측에 가깝게 서서 아베가 현실적으로 화약과 같은 동북아 정세에서 힘을 키우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아베가 힘을 길러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찬성 측에서는 국방력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대해 아직까지는 자숙해야 하고 전쟁에 대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길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고, 특히 한일 간의 친목과 평화를 위한 건지는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또 자국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해나가고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해 이기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양국이 진심으로 소통하여 진정한 한일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까지 이룩하길 바란다.



고미네 교수님 강의



김 해
인
조동준 교수님 강의

대인지뢰금지규범의 성장

대인지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발단은 월남전이라고 한다. 월남전에서는 대인지뢰를 포함해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들이 너무나 많이 쓰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비인도적인 무기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인지뢰에 대한 점차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인지뢰를 없애기 위해 NGO가 모였다. Human Right Watch의 보고서로 시작된 NGO 활동은 ICBL이 되어 여러 규범화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인지뢰 금지 촉구안(1992), 대인지뢰 회의 개최(London, 1993), 1200 NGO와 60개 국가의 지원 확보(1997) 등의 활동을 통해 공명화에 성공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인지뢰 규제에서 금지로 심화, 우호군의 확대가 된 Ottawa 협약(1997)이 있다. NGO가 국제법을 만든 2번째 경우이며, 국제적십자사가 전쟁 법 초안을 만들었다. Jody Williams는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이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NGO와 협업하며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

한국 내 대인지뢰는 세 시기에 걸쳐 매설되었다. 첫째로, 한국 전쟁 당시 교전을 벌이던 부대가 방어용으로 설치하였다. 둘째로, 쿠바위기 때 Berlin 함정으로 미군 시설물 방어용으로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북한의 공격 대비" 방공포 부대 방어용으로 설치되었다. 이를 토대로 KCBL도 대인지뢰 금지 규범 노력으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14년 10월에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인지뢰금지규범의 성장과정을 통해 무기 및 전쟁에 대한 시각의 양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과거보다는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인해 전쟁 및 지뢰의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현재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효율성을 포기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재 당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생각만하고 그저 지나치던 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시각과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조동준 교수님 강의



최 아 람
김기정 교수님 강의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해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무엇을 협력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부터 강의는 시작되었다. 현재 한일외교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간의 문제란 역사인식을 비롯한 국민감정에 기인한 바가 많아 국가간의 관계보다 민간 레벨에서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해결의 밑거름을 찾을 수 있다.

동북아지역을 살펴보면 협력과 평화의 역사보다 분열과 갈등의 역사였다. 근대의 시작은 자본주의 열강국들의 팽창 때문에 열강국과 충돌하거나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긴 전쟁시대를 걸쳐 동북아 지역은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평화 속에 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있다.

평화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문화적 대화, 서로의 이미지와 고정관념의 변화, 또한 전략적 협력이 있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양국에서 해결해야 것은 우선 역사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상황주의 논리로 설명하지 말 것이며, 이는 정부 개입보다 민간 레벨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심각한 문제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공격적인 내셔널리즘을 양국 모두 끝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셔널리즘은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에 더욱 한일관계에서는

PEACE
TOUR
2015
• 14

활동 소감문

강의 감상문

8월 4일, 12일 ~ 13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견제가 중요해진다.

“Si vis pacem, para bellum –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로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여태까지 인류는 이러한 생각만 해왔고 식민지 생활전에서 비롯된 세계대전이라는 아픈 역사가 발생한 것이다. 현실주의적 생각보다 먼저 평화가 오면 어떤 미래가 오는지를 상상해볼 필요가 있다.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며 또 이런 과정이 교육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이 세계평화에 있어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 Einstein



김기정 교수님 강의



김병욱
조재국 교수님 강의

한반도 지뢰에 대한 총괄적 정리

한국 지뢰지대가 세계에서 가장 지뢰 밀도가 높다. 군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뢰제거를 못하겠다고 하였다. 국방부에서는 현재 기술로는 489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M14 플라스틱 지뢰를 많이 써서 발견이 잘 되지가 않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뢰 탐지견이다. 하지만 개를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고 유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뢰 매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전쟁에 쓴 무기를 다 제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고 만약 사고가 일어나도 신고를 하면 군부대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경작지에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지뢰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피해 당시 임금으로 보상을 책정해서 오히려 피해를 오래 전에 당한 사람이 요즘 당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는 문제이고 치아 보상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논의점이 많다. 현재 국회에서는 6,70년대 피해자는 2천만원 정도로 하자고 생각 중이라고 한다.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가족을 위한 보상, 심리적, 재활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고, 지뢰 한 번으로 사회 커뮤니티가, 심지어는 가족 사이의 관계 까지 깨지기도 하기에 그러한 보상까지 포함돼야 하는데 이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언급하셨다.

위원회는 민간인 출신이 많아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 위원회는 군인 출신이 다수이다. 그렇기에 견제가 되지 않고 한쪽 견해에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가치관이 있는 상황이어도 무작정 데모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건드리지 않는 gray zone을 만들어 놓고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조재국 교수님 강의



이정현 지뢰피해자 만남의 시간

지뢰 피해를 당한 장소가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뢰의 위험성 속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뢰피해를 당한 기억이 매우 아픈 트라우마일 텐데 너무 무겁지 않게 흔쾌히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마다 겪었을 억울함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삶의 태도가 존경스러웠다. 시련

을 신앙으로 극복하시는 과정 또한 감동적이었고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도 내 가치관이 정화되는 것 같았다. 삶의 소중한 가치와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지뢰 피해자와의 대화

견학 감상문

8월 5일, 12일



김나연 JSA 강의 감상문

NNSC 소속 스위스 장군님께서 진행하는 판문점 및 NNSC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NNSC는 UN 산하 단체로 남북간의 휴전 협상을 유지하고, 또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Peacekeeping Troops의 일부는 아니며, 뉴욕에 있는 UN지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본래 휴전 협상이 체결 될 때에는 네 개의 중립국(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대표들이 초청되어 협상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연달아 독립하는 과정 속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사라짐에 따라 4국 중 3국만 남게 되었다. 또, 이어 폴란드가 나프타에 가입한 것에 불만을 느낀 북한은 폴란드 측을 추방해버렸다. 따라서 남한 진영에 머무르던 스위스 및 스웨덴 측만 판문점에 남게 되었다. 상징적으로 1년에 한번 폴란드 측의 대표가 JSA에 방문하면 그때 모든 서류를 처리한다고 한다.

NNSC는 휴전협상이 평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

할을 하고, 또 국제 사회에 이런 조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업무의 큰 부분은 실질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이다. 그 외에는 남북한 간의 왕래 및 교류가 있을 때 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지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고도 한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고, 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되새겨 보았다.



이정현 JSA 탐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영화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판문점은 DMZ 내 남북한 사이 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물들이 있는 장소로서 한국전쟁 시기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이 열렸던 곳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대했던 곳이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남한 측 건물인 '평화의 집'을 통과하자 나타난 군사분계선이 몇 발자국 앞을

견학 감상문

8월 5일, 12일

지나는 광경이 나타났다. UN의 색을 상징한다는 하늘색 건물들이 있었고 그 뒤로 멀리 '판문각'이라는 글씨가 적힌 북한 측의 회색 건물이 있었다. 멀리 서있는 북한군의 모습과 건물 창문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판문점에 들어서기 전에 인솔하는 군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군에게 그 어떠한 소통하려는 몸짓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정말로 당장 손짓을 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북한 땅과 북한군, 북한 주민이 있었다. 하늘색 건물 중앙을 지나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몸의 한쪽만 북한 쪽에 드러내놓고 서있는 남한 측 현병들이 있었다. 무서울 정도로 굳게 서있는 현병들과 멀리 그림처럼 보이는 북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여유로워 보이는 안내를 맡은 유엔군들과 대조되어서 눈 앞의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것이 엄연한 남북한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서글퍼졌다. 지금껏 학교 수업, 언론 혹은 일상에서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하던 '분단된 한반도'의 실체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군사분계선의 최전방에 위치한 우리군과 북한군의 초소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 곳에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비석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국기들이 새겨져 있었고 비문의 말미에는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국가이다.'라는 글귀가 있었다. 내려다보이는 경관에는 북한의 인공기와 남한의 태극기가 마주보고 휘날리고 있었다. 북한 측에 조성된 마을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껌데기만 남은 마을이라고 한다. 반면, 남한 측의 대성동 마을은 군복무를 면제받는 등의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숲이 우거진 남한 측 비무장지대와 달리 북한 측은 나무가 거의 없는 민동산이었다. 여러 면에서 남북한이 짧은 세월 속에서 매우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NNSC 점심 식사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스위스 장군님의 강연 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다이닝 홀로 자리를 옮겼다. 전식 새우 튀김을 시작으로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 후식으로는 크림 브륄레가 나왔다. 맛있는 음식뿐 아니라 각 테이블에 앉은 JSA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나라의 군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 또한 이 곳에서의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

제3땅굴

점심 식사 직후의 목적지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파주의 제3땅굴이었다. 제3땅굴은 1974년 북한군이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 땅굴을 파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시추작업을 통해 1978년에 파주 송산리에서 발견된 땅굴을 말한다. 73m 깊이에 위치해있고 총 길이는 1635m로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435m 가량 떨어와 있다. 뉴질랜드 출신 유엔군이 JSA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인솔하였고 제3땅굴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부터는 국군 한 분이 안내해주었다. 땅굴 안은 매우 추웠고 습했다. 허리를 숙이고 다니다가도 머리에 쓴 헬멧이 천장에 부딪히곤 했다. 안내설명을 맡은 군인은 종종 북한군이 땅굴을 파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던 구멍들을 가리키며 제3땅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북괴', '적군' 등의 다소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거침없이 설명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위 말하는 '통일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여서인지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인식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더 익숙하다. 그런데 북한을 주제로 설명하며 북한군들이 남한에 침입할 뻔했던 긴박한 상황을 우리군이 얼마나 훌륭히 예방했는가에 관해 듣고 있으니 조금 혼란스러웠다. 내가 가진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물리쳐야 할 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도라전망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도라전망대였다. 도라전망대는 군사분계선의 최북단에 위치한 국군 관할 전망대이다. 북한 땅이 보인다는 여러 전망대들을 가보았지만 군대가 관리하여 군인들의 안내를 받았던 전망대는 처음이었다. 안내를 맡은 군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전망대 앞에 펼쳐진 군사분계선과 개성공단, 개성시 등을 가리키며 설명하였다. 설명을 마친 후 우리는 실외로 나가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개성시가 한 눈에 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위치해있었다. 설명에 언급됐던 김일성 동상을 찾기 위해 다들 망원경에 눈을 바짝 대었다. 문득 망원경으로 북한을 살펴야 하는 현실이 슬프게 다가왔다. 언젠가는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되어 전망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예나
임진각 / 고궁박물관
/ 서대문형무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8월 12일 통일촌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가기 전 우리는 평화누리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평화의 벽’에 우리의 염원을 적은 현수막을 건 것이다. 벽은 태극기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으로 빼곡했다. ‘평화의 벽’ 이외에도 곳곳에서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하얀색 표지판을 보았다. 표지판에는 임진각을 기준으로 개성이 22km, 서울이 53km라고 쓰여 있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개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온 몸에 625 전쟁 당시의 총탄 자국을 가지고 있는 중기기관차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다.



고궁박물관

평화누리공원을 나와 우리는 경복궁에 있는 고궁박물관으로 갔다. 고궁박물관을 가기 전 먼저 경복궁을 둘러보았다. 시간이 많지 않아 경복궁 전체를 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고궁박물관은 조선시대의 왕실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왕실의 생활, 의복 등을 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명성왕후라는 이름이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고종의 비 명성황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설명을 보니 현종의 비였다. 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 밖에도 새로운 것이 많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서대문 형무소

점심을 먹은 뒤에 간 곳은 서대문 형무소이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투사가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한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독립 후 1987년까지 이용되었다고 하여 놀랐다. 마침 우리가 견학할 무렵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가 방문을 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게 수감자들을 운동시키던 곳, 사형 집행장, 사형 후 시체가 나오는 곳을 먼저 본 후에 지하 고문실로 향했다. 고문실에서는 당시의 고문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대한독립만세’라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몇몇 고문 기구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5천여 명의 수형기록표와 그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 노동 시간표 등을 보며 조금이나마 그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남북이 분단되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도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고궁박물관과 서대문 형무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8월 15일 광복절을 삼일 앞두고 가서 더 뜻 깊었던 견학이 된 것 같다.





류 제 영

새로운 경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

정말 많은 것을 느꼈던 기간이었다. 꼼꼼한 성격이 아니어서 춤춤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힘들기만 하고 싫었다는 말은 아니다. 사전 준비하면서 국장님과 팀장님께서 자세한 조언과 더불어 준비를 많이 도와 주셨다. 사전 준비할 때 두 분을 가장 많이 뵙고 대화를 나눈 멤버가 나일 것 같다.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도움을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새로운 경험이라 힘들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다. 덕분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조금이나마 더 춤춤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썸머스쿨을 진행하는 동안 각 조의 조장 및 조원들에게 ‘이러 이러한 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조장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버린 경향이 있었다. 물론 큰 계획은 세워놨지만, 각 조로 들어가서 일정을 진행시키는 것은 조장의 몫이었다. 그 부분에서 조장들이 정말 잘 해 준 것 같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고마웠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획을 해온 것 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었다. 학교를 다녔을 때 선생님들께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셨는지 정말 잘 느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다. 조그마한 일에 발끈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순수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썸머스쿨 감상문

8월 6일 ~ 11일

썸머스쿨을 진행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처음 방문했을 때 반갑게 마중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미처 돌보지 못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후기를 쓰다 보니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님, 국장님, 팀장님께 감사하고, 우리 피스투어 멤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김나연

아직도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아름거려…

썸머스쿨은 피스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처음에 썸머스쿨 프로그램 기획을 맡았을 때만 해도 사실 일이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다. 우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프로그램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복병이었고, 또 생각보다 전체가 참여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이 두 번째 복병이었다. 썸머스쿨 회의 내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할지, 또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했다.

첫째 날에는 자기소개 시간 및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마을신문 계획이 이루어졌다. 간단히 이름표를 만들며 서로 소개한 뒤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총 세 가지 게임-몸으로 말해요, 포스트잇 끼기 게임 및 명탐정 코난이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참여한 나머지 예상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명탐정 코난을 할 때 소금물을 먹은 척 연기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깜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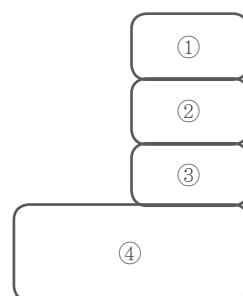
둘째 날의 안건은 과자집 만들기와 과학 실험이었다. 과자집 실험에서 멘토들은 아이들이 식빵에 조청으로 여러 가지 과자를 키친이 쌓아 올려가며 과자집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하나같이 감탄했다. 과학실험의 경우 1,2학년은 손가락 화석이랑 미니 램프 만들기, 3,4학년은 호모폴라모터랑 만화경 만들기,

5,6학년은 전통차랑 호모풀라모터 만들기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했는데, 신나는 분위기 아래서 이루어졌다. 시간이 남은 친구들은 다른 학년의 실험도 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일본 문화체험 및 멘토링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일본 사람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보였다. 일본 전통옷을 입어보고, 간단한 일본어 단어들을 배워보며 새로운 문화접碰의 시간을 가졌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멘토링이 이루어졌는데, 프린트에 자신의 꿈에 대해 적어보고, 인생그래프를 그려보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멘토들 또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크고 작은 조언들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날에는 전지에 그림 그리기 및 마을신문 만들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작별인사 시간이 있었다. 저학년은 학년별로 나누어 전지에 물감, 종이, 크레파스, 색연필, 그 밖의 여러 공예용 장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바다, 동물원, 숲 속 등 다양한 주제가 나왔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림들이 탄생했다. 고학년은 마을 신문을 만들었는데, 장단콩 마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기사를 쓰기도 했고, 피스 투어에 대해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광고나 날씨 란에서는 아이들의 재미난 발상들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이었기에 아이들에게 활동 중에 찍은 사진을 인화해 한 장씩 나누어주며 아쉽게 해어져야 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똘똘 하면서도 미숙한 부분도 있는 아이들을 4일간 이끌고, 같이 활동하면서 나 또한 많이 성장했다. 과학 실험 중 만화경을 들여다보던 꼬마의 환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린다.



- ① 마을 신문
- ② 과자로 집 만들기
- ③ 과학실험에 신기한 아이들
- ④ 단체사진





이 예 성

멤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농활…

작년과는 다르게 앙케이트에서부터 마을 주변 화단 정리 및 잡초 뽑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농활을 포함해서 약 4차례에 걸쳐서 풀 뽑기를 하였다. 그리고 고추 따기 일손도 한 차례 거들어 드렸다.

농활을 하기 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매우 힘들고 재미없는 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동안 같이 온 피스투어 멤버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쉬기도 하면서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피스투어 멤버가 모두 참여하여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팀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다들 힘들고 더워서 대충대충 작업할 줄 알았는데 다들 열심히 작업에 임해주어서 마을 분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았다.

고추 따기 작업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먹는 고추장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그 처음 부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몰랐던 것은 고추는 각 열매마다 제대로 익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익은 고추를 딴 후에 덜 익은 고추가 있다면 그대로 두고 하루나 이틀 뒤에 다시 따려 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추 따기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 금방 적응 되고 또 모든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하여서 작업도 금방 끝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여러 바구니에 한 가득 담겨있는 고추를 보니 매우 뿌듯하였다. 도시에서 생활하면 잘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좋은 시기에 피스투어를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양 소 혜

따도 따도 끝이 없는 빨간 고추들…

우리들은 이번 피스투어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오전에 속소 주변 길이나 화단의 잡초 뽑기, 고추 따기 등을 했는데, 잡초 뽑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소나 사람, 음식이 다르니 느낌도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찌는 여름에 잡초를 뽑고 있으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만 지나가다 저희들을 보신 주민분들이 다정하게 ‘열심히 하는 구나’하고 말을 걸어주시고 음료수도 주셔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잡초를 뽑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웬지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도로변 잡초를 뽑는 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잡초에 가려져있던 꽃잔디와 나무들이 말끔하게 보여지는 것이 기분 좋았고 어차피 우리가 못해드리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통일촌에 사시는 모든 주민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처럼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된 농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이장님께 부탁하여 고추를 따더라도 갔습니다. 고추밭에는 새빨간 열매가 잔뜩 달려 있었는데 한국의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닐 하우스 안은 더웠고 시작 시간도 6시 반이어서 일찍 일어났기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추를 따도 따도 끝이 안 나서 좌절할 것만 같았지만 농가 분이 음료수도 주시고 점심도 주신다고 하여 모두 힘을 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자 고추가 몇 박스나 모인 것을 보고 매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농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이해하고 음식을 먹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상적으로 남았던 기억은 휴식하고 있을 때 밭 주변 도로에서 군인들이 뛰는 모습이나, 군부대 차량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서울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역시 여긴 민통선 주변이라는 걸 느꼈고 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워지면 좋겠다고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잔치

8월 9일



성미래

8월 9일 일요일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마을잔치를 열었다. 우리들은 직접 수육을 만들었고 수박, 복숭아들의 과일과 떡 그리고 동동주와 소주를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주민분들이 한 두 분씩 모이기 시작하여 마을잔치가 시작되었다. 마을주민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매니큐어도 바르고 안마도 받고 염색도 해서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라고 주민분께서 말씀해주셔서 기뻤다.

조재국 교수님께서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한국팀과 일본팀은 각각 장기자랑으로 준비한 유명한 국민 아이돌의 춤과 노래를 발표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일본 축제 때 추는 전통춤인 ‘본 오도리’를 추었다. 아주 쉽고 단순한 춤이어서 마을 분들도 흥미롭게 봐주신 것 같았다.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나서 한 주민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촌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 통일촌에 왔을 때는 북한과 너무 가까운 동네라 무서웠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군부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다시 먼 길을 되돌아가셔야 했다. 그럴 때면 너무 불편하고 억울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 도둑이 들 일도 없고 안심이 되기도 했다. 이제는 통일촌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 “우리 나라가 휴전 중에 있다는 현실을 항상 눈으로 확인하며 살려니 두렵고 무서웠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마을 전체가 단합이 잘됐지만 이제는 젊은이들도 별로 없어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잘 지낸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되돌아 보게 됐다. 통일촌에서 단절된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북한이 빨리 통일되어 통일촌과 같은 마을이 없어졌으면,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김 응 비

피곤함과의 싸움

대부분의 토론은 정식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 저녁이나 밤에 이루어졌다. 멤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아침엔 농활에 오후에는 썸머스쿨을 진행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피곤하지 않은 자일을 하지 않은 자일 것이다. 진행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토론이

진행될까. 토론을 짧게 자르고 일찍 쉬는 편이 내일 일정에 좋지 않을까.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눈빛들이 초롱초롱 회복되었다.(정말이다) 조원들끼리 눈빛싸움과 눈치싸움이 이어졌고, 다들 토론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비정상회담

토론의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였다. 한국어와 일어에 능통한 학생이 여럿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장벽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에 더해 미국에서 인턴으로 온 재혁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토론 내용에 집중하자 어느 정도 이러한 장벽은 허물 수 있었던 것 같다. 통역이 필요해서 약간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모두가 진중한 태도로 토론에 임했다.

찬반이 아닌 생각의 공유

토론을 처음부터 끝을 준비한 나로서, 토론에 대해 기대한 부분은 바로 치열한 공방전이다. 다른 생각들이 맞부딪히며 뜨거운 열기 속에 토론이 진행되고 진행자는 논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역시 평화를 위한 모인 피스투어여서 일까? 생각의 충돌보다는 서로의 이해가 먼저 앞선 토론의 장이었다. 각자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생각의 공유를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의 공격적인 토론 성향에 대해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토론

8월 6일 ~ 11일

왜 토론을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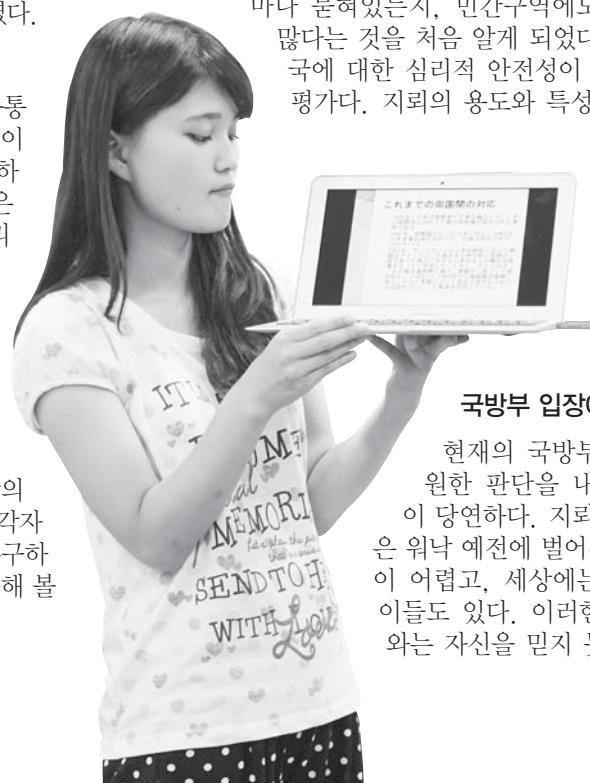
토론을 준비하면서 의구심이 들었다. 바로 이 봉사활동 과정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다들 피곤하게 봉사하고 와서 쉴 시간도 부족한데 쉬는 시간이나 다른 활동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토론에 대한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토론은 누굴 위한 토론일까?

이러한 의구심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라졌다. 왜 토론이 이 봉사활동 과정에 포함되었는지는 3가지 이유가 있다.(개인적 의견임을 다시 밝힌다.) 하나는 토론을 통한 교류이다. 한일간 서로 서먹했던 모습들이 토론 주제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의 피스투어 팀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토론이 없었어도 충분히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다. 하지만 토론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지뢰특별법

지뢰에 대한 인식

일본 측은 대인지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상태였다. 국제적으로도 금지 받는 무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지뢰하면 클레이모어 같은 것만 생각하여 무기 중 하나라는 인식만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지뢰가 얼마나 묻혀있는지, 민간구역에도 매설된 지뢰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심리적 안전성이 조금 낮아졌다는 평가다. 지뢰의 용도와 특성상 아군·민간인에게도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라는 점은 그 누구 하나 반대의 의견이 없었다.



국방부 입장에 대한 생각

현재의 국방부 입장에서는 시원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이 당연하다. 지뢰피해자의 대부분은 워낙 예전에 벌어진 일이기에 증명이 어렵고, 세상에는 이를 악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피해자와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

여 마찰이 생기는 것 같다. 과거의 사건을 질질 끈 것이 문제라고 생각. 또한 지뢰피해자들에게 주는 보상금이 보상의 의미보단 '위로' 차원의 개념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나 보상 처리과정을 보았을 때 뭔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지진 않았다. 그저 유감스럽다 정도?

한국의 지뢰피해자 분들에 대한 보상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임에도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법적으로 어떠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지뢰 피해는 그 어느 경우보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지닌 만큼 지뢰피해자 분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 충실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내용은 보상이지만 지원금, 위로금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다는 말도 납득하기 어렵다.

타국의 민간인 피해자 처리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낮은 캄보디아, 양골라에서도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매년 80억원 기부를 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을 위한 보상처리가 너무 미흡하다. 일본측 또한 원자폭탄에 대한 민간인 피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에서 각 나라의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북아 군비경쟁

찬성 입장 : 군비의 증강이 불가피하다.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긴장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무기 개발에만 투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북한 상황은 휴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른다. 남북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한국은 국방비를 증진 시킬 필요가 있고 이걸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비의 목적이 전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 군비가 가장 높아야 할 것이다. 군사 준비를 함으로써 역으로 전쟁 발발 가능성의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반대 입장 : 군비의 증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자.

군비경쟁 속의 평화보다는 군비 경쟁이 없는 평화를 원한다. 나라와 나라간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외교력과 문화교류를 통해 관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지 단순히 군비경쟁을 통해 갈등에 대한 회피를 해선 안 된다. 군비로 투자될 비용을 외교에 더 투자하자. 그래서 세계평화를 위해 다른 나라도 군비경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도 발언권을 가지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군비 경쟁은 군사적 갈등을 일으킨다. 상대국의 군비 증강은 군사적 도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 것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다.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시키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한국에 있어 군비 경쟁은 그다지 이익을 주지 않는다. 매년 국방비를 35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조금만 줄여 국가 내수에 투자한다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다면 군비로 투자한 비용은 큰 이익이 없게 될 것이다.

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무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고 전쟁을 내고 싶고 효과를 시험해보고 싶을 것이다. 지금처럼 군비를 비축하고, 무기를 개발하다 보면 힘을 쓰지 않고 계속 비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어느 순간 비축한 힘의 압력으로 전쟁이 터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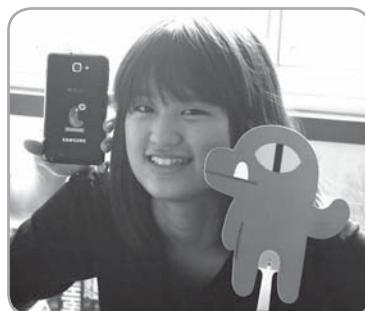
이 시 훈
토론

피스투어 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토론은 마라톤을 한 경기 뛴 것 같은 바쁜 일정을 끝내고 모두가 반쯤 감긴 눈을 끔뻑거릴 때 즈음에 시작되었다. 5분 전 까지만 해도 다들 지쳐 있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토론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토론은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로 나누어서 준비했다. 동북 아시아의 군비경쟁, 한일 영토문제 등 자칫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치우쳐 멤버들이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가벼운 주제를 다수 넣었던 덕분에 즐겁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통역 담당이었던 나는 한국말을 일본말로 일본말을 한국말로 옮기는데 급급해 내 생각을 말할 여유는 많이 없었지만 통역에 집중하면서 다른 멤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일 학생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큰 듯 하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 일본이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이웃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이라고 하면 언뜻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론 시간만큼 진지하게 멤버들과 둘러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논할 시간은 많지 않다. 가끔은 진지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피스투어 멤버들을 더 깊이 알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이즈미사와 아야카
DMZ, JSA 견학 소감

이번 JSA 견학을 가기 전까지는, 일본인인 나는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대해 역사상의 사건이라는 웬지 모를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판문점에 가보니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감시하는 군인의 모습에 놀랐다.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커다란 문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판문점 건너편이 북한이라는 실감은 그다지 들지 않았다. 딱히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판문점 앞에서 모두와 기념 촬영을 했지만, 이 광경도 저쪽 북한 군인이 감시하고 있다 생각하니 무서웠다. 판문점 안에 들어가자, 중앙에 코드가 설치돼있어서 그걸 넘어가면 북한이라는 소리를 듣고 코드를 넘어가봤지만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지금 북한 영토 안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북한 땅에 발을 대어봤다는 경험은 쉽게 겪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웬지 멀게 느껴지는 북한을 가깝게 느낄 수 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제3땅굴 견학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몰래 판 땅굴이라는 설명은 사전에 들었었지만 이 거리를 실제로 파낸 사람이 있고 한국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안은 시원하다기 보다는 추웠고, 때때로 물방울이 살짝 떨어져서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도라 전망대에서는 군인이 남한과 북한의 지역 모형으로 설명했는데, 한국말도 빠르고 조금 멀리 앉아서 내용



은 그다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김일성 동상을 본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개성에는 지금도 그 동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복잡한 심경이 됐다.

JSA 견학 전체를 통해 느낀 것, 배운 것은 정말 많았지만 가장 가슴에 남은 것은 한국 멤버도 북한에 대해 어떤 의미로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그저 적국으로 보지만은 않고 좀더 알고 싶다고, 혹은 가보고 싶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한국과 북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할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히로타 안주
썸머스쿨

썸머스쿨에서 일본 문화 소개를 담당했는데, 간단한 일본어 교실과 종이접기, 일본 전통 의상인 핫피를 입고 기념 촬영회를 하였습니다. 통일촌 아이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가져줄지 걱정했는데 일본어 교실에선 큰 목소리로 말해주어서 안심했습니다. 종이접기는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특유의 수리검 등을 접어서 즐거워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어서 이야기를 들어줄지 걱정했는데 피스투어 멤버들의 협력 덕분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경 하
썸머스쿨

나는 한국인 ‘아이들’과 교류하는 건 처음이었다.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긴장했지만 학교에 도착하고 아이들을 눈앞에 보자 생각보다 금방 긴장이 풀렸고, 아이들과 잘 이야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우 사람을 잘 따랐고 우리들을 환영해주었다. 내 담당은 1학년이었지만 다른 학년 아이들과도 정말 많이 친해졌다. 썸머스쿨 중 일본 문화 체험이 있었다. 모두 함께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전통 문화인 종이접기를 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일본어 한마디를 입에 담고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신선했고 감동적이었다. 종이접기도 점차 능숙해지고 완성한 작품을 선물해주기도 해서 감동 넘어 감동이었

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면 매우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다시 한 번 말해주라고 부탁하면 아이들은 짧은 내색 하거나 않고 다시 말해주었다. 나는 썸머스쿨을 통해 한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오 광 석
전체 감상

두 번째로 참가하게 된 이번 해의 피스투어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일본멤버 모집의 어려움 또한 있었고, 활동 첫 날부터 파주의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또한 발생하여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실제로 했던 활동은 너무 즐거웠고 보람찬 활동이었다. 미국에서 자란 멤버, 일본에서 자라서 한국으로 대학을 온 멤버, 한국에서 자라서 일본으로 간 멤버, 일본인멤버, 한국인멤버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른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하고 같이 먹고 지내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고, 초등학교와의 협조가 잘 되어서 이번 해는 민통선 안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교류 또한 활발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뢰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지뢰피해에 관해 생각할 수 있었기에 재미있고 뜻 깊은 활동이 되었다.



쿠마사코 마이카
전체 감상

한일 학생이 긴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인과는 처음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래 같이 지내면서 보통 친구가 되어 나라와 나라의 대립 같은 것은 상관이 없구나 하고 느낀 점이 피스투어에서 느낀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평화로운 사회인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다는 점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어르신들은 일본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거나 일본인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마을에서 할머님들과 만났을 때는 환영해주셔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김 백 상

9박 10일이 꿈과 같이 흘러갔다. 통일촌에서의 첫날밤이 어제 와도 같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지뢰의 위험성과, 그 피해자분들의 슬픔과 고통. 접경지역에서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전쟁의 상흔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서 온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들.

그 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켰으리라.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참가임에도 느껴지는 바가 많았다. 평화는 앞으로 젊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장을 보고 느끼지 못하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할 수 없다는 조재국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나를 포함하여 모든 피스투어의 멤버들이 통일촌에서 이를 느끼고 돌아왔다.

리더로서 멤버 하나하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전체를 잘 볼 줄 알았던 총무 정현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웃은 일을 도맡아 했던 부리더 해인이. 이렇게나 사진을 많이 찍을 줄은 몰랐던 건파라치 건후. 특히 서기로서도 고생 많았다. 피스투어에서 청량감을 선사해준 스마일맨 Zeke. 친한 후배로서 나를 잘 따라주고, 역시 항상 웃으며 일해준 제영이. 밤마다 우리를 배꼽 잡게 만든, 나름 진지했던 예성이. 식사도 맛있게 만들고, 졸지에 나 때문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게 된 예나. 무심한 듯 시크하면서도 남을 잘 챙기고 배려해주던 병욱이. 청소에 힘쓰고, 일본 멤버도 잘 챙겼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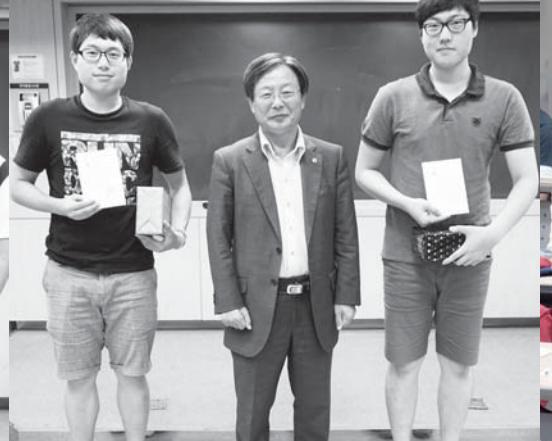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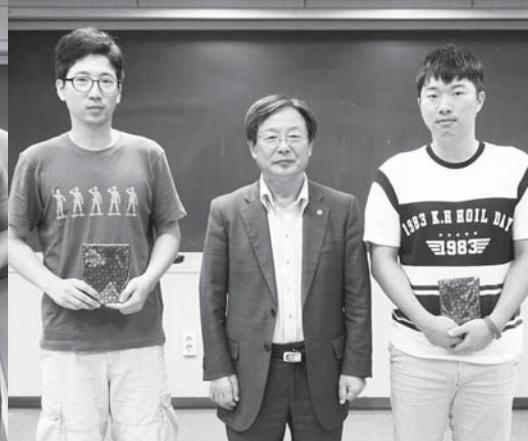
해단식

8월 13일

현희이. 진지함과 개그감이 충만하여 모두의 사랑을 받았던 웅비. 웅비와 투닥거리는 한편, 일본 멤버들을 잘 챙겨준 아람이.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제일 먼저 나서서 밝게 분위기로 일하던 소혜. 팔색조의 매력이 넘치고, 블리프를 하면 다 티가 나는 미래. 친근하게 다가와 긴장감을 녹여주었던 나연이.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해오고, 농활을 적극적으로 했던 마이카. 언제나 활기차며 밝게 웃는 매력이 넘쳤던 아야카. 일상적인 통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무엇이든 의지가 되었던 경하. 조용했지만 어느 한순간 확실한 존재감을 내보이며 빽 터지던 안주. 한국팀과 일본팀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잘 맺아준 듬직했던 시훈이. 마지막으로 일본팀 리더로서, 피스투어를 함께 이끌어 준, 나의 정말 좋은 친구 광석이.

그리고 피스투어를 위해 너무나도 큰 힘을 써주신 PSA의 조재국 교수님과 김난경 국장님, 김태준 팀장님, Shigetsugu Komine 선생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 모두가 멋진 인연으로 남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더 나아가 평화를 위한 조석이 되어 언제까지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사랑해요. 피스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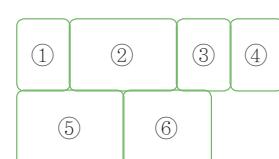
활동 스케치

첫째날



강의

8월 4일, 12일 ~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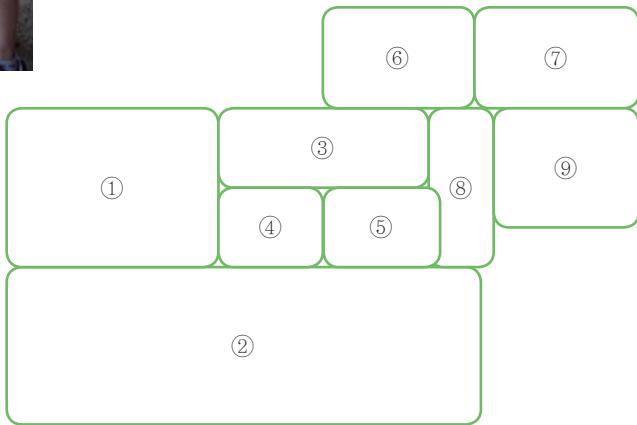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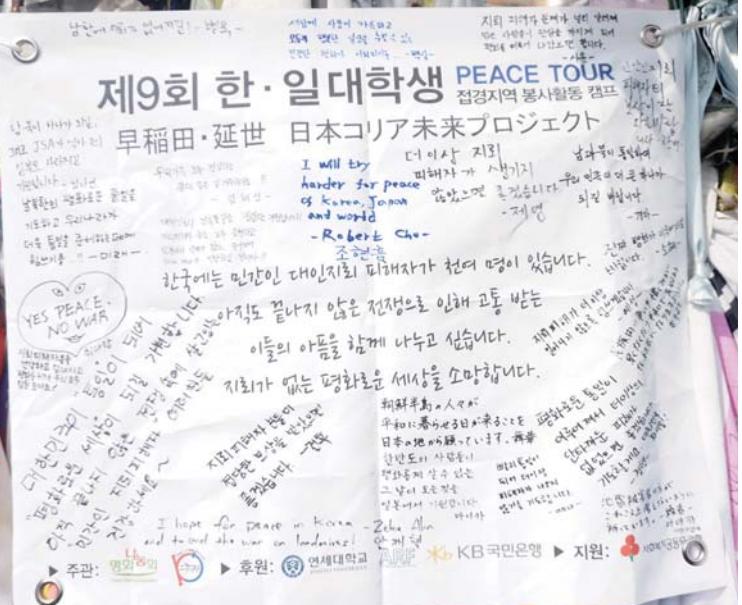


- ① 지로피해자 김종수님과의 만남
- ② 지로피해자 고준진님과의 단체사진
- ③ 김기정 교수님에게 감사 선물!
- ④ 조재국 교수님 강의
- ⑤ 지로피해자의 경험담을 경청하는 멤버들
- ⑥ 피곤하지만 강의를 놓칠 순 없다

견학

8월 5일, 12일





PEACE
TOU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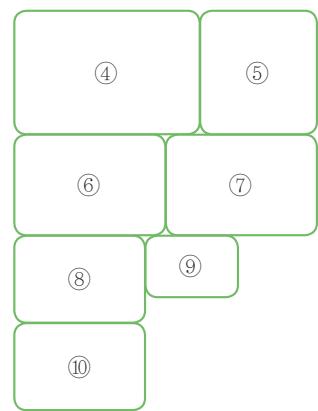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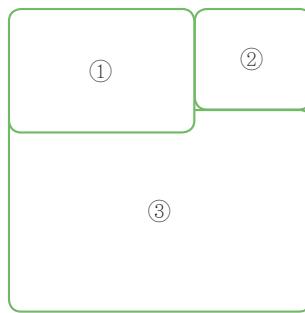
• 30

활동 스케치

농활

8월 6일 ~ 11일





- ① 선글라스는 필수품
② 꽃단장
③ 통일촌 마을 단장 하다 찰칵!!

- ④ 빵야빵야빵야
⑤ 안마
⑥ 네일
⑦ 의뢰인(?)분과!
⑧ 염색
⑨ 농활 후 식사
⑩ 피부는 우리의 생명이다

PEACE
TOU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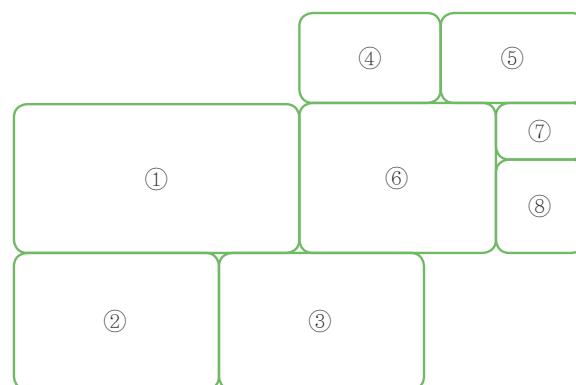
• 32

활동 스케치

썸머스쿨

8월 6일 ~ 11일





- ① 이동
- ② 일본팀 인사
- ③ 대학생들보다 연기를 잘했던 아이들!
- ④ 손 안대고 포스트잇 띠기
- ⑤ 농구 시합 한판
- ⑥ 과자집 만들고 셀카
- ⑦ 야, 똑바로 해라. 네.....
- ⑧ 자매같아요~

PEACE
TOU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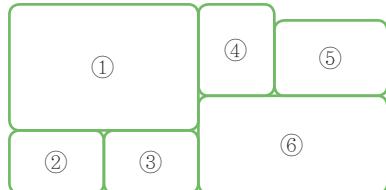
• 34

활동 스케치

마을잔치

8월 9일





- ① 일본 전통 춤 "본 오도리"
- ② 한국 여자팀 춤
- ③ 교수님도 한 컷
- ④ 맛보기도 빠질 수 없다
- ⑤, ⑥ 마을 주민분들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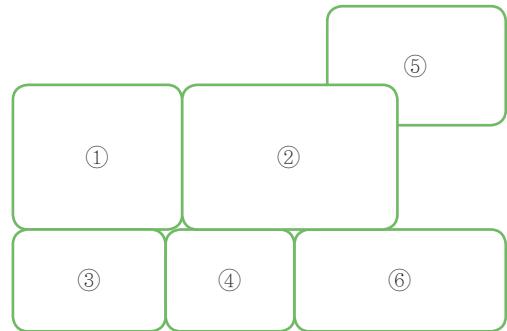
PEACE
TOUR
2015
• 36

활동 스케치

해단식

8월 13일





- ① 참고로 왼쪽이 언니
- ② 안녕..
- ③ 우는 거임
- ④ 공로상 상품은 부채!
- ⑤ 마지막 식사
- ⑥ 활동이 끝나고 한껏 친해진 멤버들



보고서를 마치며



전 건 후

길고 길었던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읽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편집자였던 전건후입니다. 아무래도 멤버들에게만 글을 쓰라고 강요하고 아무 글도 쓰지 않는 것은 조금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편집자의 권한으로 지면을 챙겨보았습니다. 야호~

모두를 처음 만났던 첫 번째 사전 회의 날을 떠올려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쭈뼛쭈뼛 자기 소개를 하고, 모두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국적, 다양한 경험을 겪어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모두 평화를 사랑할 것 같은 인상들만 모였는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날 각자의 역할을 정했는데, 저는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뭣도 모르고 성큼 서기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어쩌다가 사진 촬영까지 맡게 됐고, 계속 멤버들의 활동 기록을 담당하다가 어느 새 이 보고서를 감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 솔직히 보고서 편집 쯤이야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냥 부담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적언을 빼저리게 체감했네요.

하지만, 저는 사전회의 때부터 모두의 말을 기록하고 곱씹으면

서 회의록을 작성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모두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활동이 끝난 이후 그 사진들을 수도 없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를.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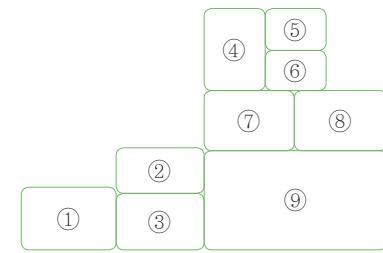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이러한 멤버들의 땀과 노고를 문서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활동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죠. 멤버들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록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졌었는데, 이렇게 끝마치니 그래도 조금은 훌가분하네요.

편집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공적인 보고서이다 보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친해졌는지 알 수 있는 글을 별로 신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에서 피스 투어 활동이 끝나고도 멤버들끼리 재미있게 놀았던 사진을 조금이라도 실어서 이를 나타내보려 합니다. 우리, 그래도 꽤 친해졌잖아요? (제 착각인가요…? 흑.)

그러므로 역시 이 말로 보고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피스투어 여러분!





- ① 신촌의 상징에서 찰칵!
- ② 마이카의 행복한 표정에 주목
- ③ 이곳에서 남친을 찾은 멤버가...
- ④ 활동 끝난 후 벽화마을 투어!
- ⑤ 노래도 잘하는 총무
- ⑥ 보드게임방의 웅타짜
- ⑦ 광복 70주년에 한강 멀어서 아쉬웠던 불꽃놀이~
- ⑧ 카카오 매장에 흠뻑 빠진 일본팀
- ⑨ 이대투어





병욱의 식사

통일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 팀원들이랑 활발한 이야기를 못해서 팀원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식단에 대해 논의 할 것.

문산역 홈플러스에서 전원이 다 같이 장을 봐서 너무 혼란스러웠다(계산대 앞에서 보니 중복 되는 식재료 많았음). 내년에는 장을 보는 리스트를 좀 더 촘촘히 작성하고 장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5명이면 충분 할 것 같다.

일본팀이 한국의 시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예산이 확실하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한국팀과 일본팀의 식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해야 할 것 같다.

일정 후반쯤 에서는 썩은 야채가 많이 나왔다. 내년 멤버들은 장을 다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채와 썩을 수 있는 음식은 지역에서 자주 조금씩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나의 식사

일본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겹치는 메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메뉴를 정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식사 이외에 야식이나 간식을 많이 찾았다. 예산 내에서 간식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음식물 쓰레기는 설거지 당번이 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버리는 곳 위치가 제대로 공지되지 못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당번을 제대로 공지할 것.

미래의 마을잔치

갑자기 오후에 장소가 바뀌어 마을회관에 어떤 접시가 있는지, 혹은 고기를 썰 칼, 과도는 있는지, 집게나 행주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느라 우왕좌왕… 잔치 시작 시간을 맞추지 못해 초대한 마을 분들과 평화나눔회 회원님들을 기다리게 했다.

전체적인 진행은 좋았지만 주민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빙고나 추천게임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준비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음식들은 맛있었지만 밥(쌀)이 있었다면 김치와 수육을 함께 배불리 먹지 않았을까 싶다. 동동주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 않았다.



제영의 썸머스쿨과 농활

썸머스쿨에 아이들 이름표를 넉넉하게 사지 못해서 부족할 뻔 했다. 준비물을 구매할 때에 여유분을 넉넉하게 준비할 것.

다음 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일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선생님들께 미리 설명하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다. 썸머스쿨 일정도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마을 입구에 잡초를 뽑으라고는 하셨는데 어디까지 뽑아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고 지역 농민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

는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다. 아무래도 농촌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도시 아이들이라 못 미더우셨던듯~ ^^;;;;;

염색, 네일의 수요가 훨씬 많아서 놀랐다.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농촌 봉사의 일환으로 더욱 시간을 늘려도 괜찮을 듯하고 손자, 손녀의 마음으로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체

단체 활동이다 보니 일정표에 있었던 시간이나 프로그램에 관해 서로 시간 약속을 잘 지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다음부터는 시간만 전달하는 멤버가 있으면 어떨까?

토론 주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학생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고, 가벼운 주제와 무거운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자세가 서로 달랐던 것 같다. 무거운 주제에도 사전 공부와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평화나눔회 연혁

1997년 11월 12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창립 및 창립총회, 기자회견 오타와 조약 조인식 참가
1998년 02월	대인지뢰캠페인으로 노벨상평화상(1997년) 수상 받은 Jody Williams 초청 캠페인, 지뢰피해자 의족 전달사업
1999년 03월	노르웨이 오슬로 ICBL 회의 참가, 오타와 조약 발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촉구」 성명발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 보고 기자회견 및 '지뢰피해의 현주소' 발간
2000년 07월 10월~11월	대인지뢰 유실실험 및 정책토론회(경기도 연천)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초안 작성 – 김형오, 박세환, 정대철, 김성호, 강창희 의원과 KCBL이 공동
2001년 06월 10월	「후방 36개 대인지뢰 매설지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도쿄, 오사카) Asia-Pacific Landmine Monitor Researchers' Conference 개최(서울)
2002년 01월~12월 05월	미군기지 주변 대인지뢰 실태조사 '지뢰없는 월드컵' 캠페인 – KCBL, JCBL 공동 주최
2003년 01월 11월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대인지뢰 매설과 그 피해현황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16회) 상정
2004년 11월	제5차 UN 대인지뢰금지조약 조약국 회의 참석(캐나다, 오타와)
2005년 04월 05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2005 Aichi EXPO, Japan 지구시민촌 한국 지뢰 금지 캠페인 행사 참가
2006년 08월	"강원도 내 민간인 지뢰피해자 실태조사" 보고회(강원도청)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특별법안' 국회(제17회) 2차 발의, 박찬석 의원 외 46명
2007년 08월	'제1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2008년 05월 07월 08월	'민간지뢰 제거업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간담회 대학생 통일 캠프 공동 주관 '제2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화천군 풍산리)
2009년 02월 07월 08월 12월	강원도 철원군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평화나눔회로 단체명 변경, 창립총회 '제3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회의 참가(인도네시아, 발리) '지뢰피해자를 위한 자선음악회'(칸티쿰 합창단)

2010년 01월 08월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18대) 3차 발의, 대표발의 김영우의원 '제4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2011년 03월~09월 07월 08월 11월~12월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기자회견(강원도후원) CBS TV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 – 대인지뢰피해자 편 방송 '제5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인제군 월학리) '제11차 대인지뢰금지조약 조약국회의' 참석(캄보디아, 프놈펜)
2012년 01월 02월 03월 06월 08월 10월 12월	경기도 파주 지뢰피해자 위문 오사카 One World Festival 참석 강원도 지뢰피해자 재수술 돋기 캠페인 참여 – 강원방송 지뢰피해자돕기 MCM 자선 바자회 – 성주재단 후원 '제6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본 NGO의 'Global Festa Japan2012' 참석 '지뢰피해자 보상관련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주관 – 한기호의원, 국방부, 강원도의회, 경기도청, 강원도청 참석 제12차 대인지뢰금지조약 조약국 회의 참석(스위스)
2013년 01월 03월~04월 04월~05월 06월 08월 12월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19대) 4차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의원 평화나눔展 개최(팔레드서울) 지뢰피해자 사진전시회 개최(국회의원회관, 강원도의회) 대만지뢰제거 완료 축하 행사 참석 및 마잉쥬총동 면담(대만, 금문도) '제7회 연세 와세다 지뢰피해지역 PEACE TOUR' 개최(경기도 연천군 대광리) 제13차 대인지뢰금지조약 조약국 회의 참석(스위스)
2014년 02월 06월 07월 08월 10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위통과, 법사위 회부 제3차 오타와조약 재검토 컨퍼런스 참석(모잠비크, 마푸토)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사위 통과 제1회 Young PEACE TOUR 개최 '제8회 한일 대학생 PEACE TOUR' 개최(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15년 02월 04월 08월 09월	강원도 홍천, 화천, 철원 지뢰피해자 생필품 전달 16일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제9회 한일 대학생 PEACE TOUR' 개최(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Civilian Mine Victims in Gangwon Province, Korea" 영문 보고서 발행

제9회 한 · 일 대학생 PEACE TOUR에 도움 주신 분들

연세대학교 조재국 교수님

연세대학교 김기정 교수님

서울대학교 조동준 교수님

와세다대학교 Komine Shigetsugu 교수님

지뢰피해자 김종수님, 이경옥님, 고준진님

연세대학교 정미현 교수님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단

통일촌 이완배 이장님

통일촌 군내 초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교무부장선생님 외 선생님들

KB국민은행(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Young Steel

(재)아시아연구기금

연세대학교

전연실회원님, 김경금회원님, 이경옥목사님

자원봉사 : 권다빛, 옥진석, 옥진우



KB 국민은행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사)평화나눔회 주소 :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루스채플 212호

전화 : 02)363-6781 팩스 : 02)6422-4421

메일 : kcbl.psa@daum.net / kcbl.psa@gmail.com

홈페이지 : www.psakorea.org

발행일 : 2015. 10. 07.